## 광주 남구청사 리모델링 비용

# 당초보다 60억 증액 논란

### 비용 상환기간 늘어 區 재정압박 우려

광주시 남구가 주월동 옛 화니백화점 건물로 청사 이전을 추진중인 가운데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당초 발표됐던 것보다 무려 60억원 가까이 늘어나 논란이다.

남구는 리모델링 비용이 늘었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이하 캠코)가 일단 부담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무실 임대를 통한 비용 상환기간이 늘면서 결국 남구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 남구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청 청사가 이전될 주월동 옛 화니백화점 건물(지하 6층·지상 9층)의 리모델링 비용은 250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남구는 업무협약 등을 통해 250억원 가량인 리모델링 비용 전액을 캠코가 부담한 뒤 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 9월부터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 일부, 지상 2~4층 등을 캠코에 임대해줌으로써 상환한다는 방침이었다.

남구는 사무실을 캠코가 다시 민간에 임대할 경우 250억원에 대한 총 상환 기간이 20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구 재정을 확충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광주시가 전날 발표한 '광주시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위탁개발 사업' 입찰방법 집행계획에 따르면 총 공사비 추정금액(리모델링 비용)은 308억원으로 남구의 당초 발표보다 무려 58억원(23.2%)이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모델링 비용이 증가할 경우 청사 사무실 일부를 캠코에 임대해줘야 하는 기간이 늘기 때문에 애초에 남구가 기대했던 '리모델링 비용 상환 후 사무실 임대를 통한 재정 보충' 효과는 크게 줄어든다.

이 때문에 남구가 청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리모델링에 투입되는 비용을 축소해 발표했던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남구는 리모델링 비용이 60억원 늘어남에 따라 상환 기간 역시 5년 정도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비용은 상환을 마친 남구의 재정에 고스란히 충당돼야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늘면서 캠코 몫이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남구 청사건립추진단 관계자는 "당초 발표됐던 리모델링 비용 250억원은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라며 "세부 논의를 거쳐 물가 추가 비용, 물가 인상분,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다보니 비용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할머니 오래 사세요"** 어버이날을 앞둔 2일 광주시 북구 운암1동 롯데 아파트 경로당에서 광주 예지어린이집 원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후 재롱을 부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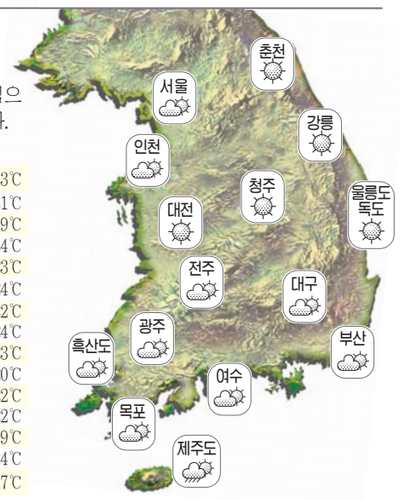
## 오늘 날씨

해뜸 05시 40분 해짐 19시 19분 / 달뜸 05시 14분 달짐 19시 29분

**아직도 모래 바람…**

서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이어지겠다.

| | | |
|---|---|---|
| 광 주 | 구름점차적어짐 | 12/23℃ |
| 목 포 | 구름점차적어짐 | 11/21℃ |
| 여 수 | 흐린뒤맑음 | 14/19℃ |
| 나 주 | 구름점차적어짐 | 11/24℃ |
| 완 도 | 구름점차적어짐 | 12/23℃ |
| 구 례 | 구름점차적어짐 | 11/24℃ |
| 해 남 | 흐린뒤맑음 | 10/22℃ |
| 장 흥 | 흐린뒤맑음 | 11/24℃ |
| 순 천 | 구름점차적어짐 | 12/23℃ |
| 영 광 | 구름점차적어짐 | 10/20℃ |
| 진 도 | 흐린뒤맑음 | 10/22℃ |
| 전 주 | 구름점차적어짐 | 11/22℃ |
| 군 산 | 구름점차적어짐 | 10/19℃ |
| 남 원 | 구름점차적어짐 | 10/24℃ |
| 흑산도 | 구름점차적어짐 | 10/17℃ |




| 〈오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서~북서 | 0.5~1.0m |
| 먼바다 | 서~북서 | 0.5~1.5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서~북 | 0.5~1.5m |
| 먼바다 | 북~북동 | 1.0~2.0m |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 식중독지수 주의 / 꽃가루지수 낮음

| 〈오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서~북서 | 0.5~1.0m |
| 먼바다 | 서~북서 | 0.5~1.5m |
| 남해 서부 앞바다 | 서~북서 | 0.5~1.5m |
| 먼바다 | 서~북서 | 1.0~2.0m |

| | 밀물 | 썰물 |
|---|---|---|
| 목포 | 02:12 14:08 | 07:28 19:27 |
| 여수 | 08:54 21:23 | 02:50 14:54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4(수) | 5(목) | 6(금) | 7(토) | 8(일) | 9(월)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9/22 | 10/20 | 10/21 | 13/23 | 13/23 | 14/23 |

## '징검다리연휴' 해외여행 러시

### 무안국제공항 출국자 80% 늘어

최장 6일에 달하는 황금연휴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예년에 비해 배 가까이 급증했다.

2일 무안국제공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연휴(1일~6일)에는 237명이 무안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났으나, 올 5월(5일~10일)에는 80% 가량 증가한 424명이 출국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연휴가 어린이날부터 시작해 토·일요일을 거쳐 석가탄신일까지 징검다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해 보다 4박 이상의 해외여행을 떠나기 쉽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여행 상품이 거의 사라지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여행이 선호됨에 따라 해외여행 상품 구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회사원 김지영(여·34·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황금 연휴(5일~10일)를 이용해 다녀올 수 있는 5박6일짜리 해외여행 상품을 구하기 위해 1개월 전부터 여행사는 물론 인터넷 구매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예전 같으면 일본 상품이 많아 쉽게 해결했지만 올해는 동남아 관광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 여행 상품 구매가 어려웠다.

해외 여행은 물론 국내 유명 관광지도 여행객이 몰리기는 마찬가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국내선의 경우 5~7일 사이 광주발 제주행 항공권은 이미 동났다. 엘도라도·금호·중흥 등 국내 유명 콘도미니엄도 연휴예약은 거의 끝난 상태다.

광주 JT 여행사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동남아·중국 여행이 지난해보다 두배 가량 늘었다"며 "가족 단위 단거리 여행인 태국·필리핀 등 동남아 패키지 상품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전남 슬로시티 산소 음이온 '풍부' 타지역의 10배 이상

전남 슬로시티 지역의 산소 음이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풍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도내 슬로시티 지역의 대기환경 특성에 따르면 담양 창평과 장흥 유치, 완도 청산, 신안 증도 등 슬로시티 지역의 산소 음이온이 도시지역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소 음이온은 장흥 유치에서 최대 3300개/㎤로 가장 많았으며 완도 청산 2720개/㎤, 신안 증도 2620개/㎤, 담양 창평 2380개/㎤ 순이었다.

이는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시지역이 0-200개/㎤ 수준인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으로 슬로시티 지역이 인체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음이온 발생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 국립공원의 야생화

### 목포 유달산서 첫 발견…해안지방 주로 분포

**〈10〉 자란**

자란은 70cm정도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목포 유달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전남 해안 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난과식물이다.

봄에 오면, 바깥 기온이 섭씨 15도를 웃돌 때, 알줄기가 형성되어 잎을 내보내고 꽃자루를 올려 3~7개 정도의 꽃을 피운다. 꽃잎 가운데에 있는 순판은 유독 빛깔이 연하고 주름져 있으며, 다른 꽃잎의 밝은 자줏빛과 어울려 고운자태를 뽐낸다.

홍자색 꽃잎을 가진 난초라 하여 '자란'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